

AI 전문 · 에너지 솔루션 기업, 전주에 '등지'

전북자치도 · 전주시 · 전북연구개발특구, 한국기계설비기술 · 모레 등 2개 기업과 356억원 규모 투자협약 체결

최근 세계적으로 각광 받는 AI(인공지능) 분야의 전문기업과 에너지 솔루션 기업이 전주에 등지를 틀기로 했다.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연구개발특구는 16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탄소국가산단과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 입주를 희망하는 (유)한국기계설비기술(대표 하정성)과 (주)모레(대표 조강원) 등 2개 기업과 총 356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유진혁 전북연구개발특구 본부장, 하정성(유)한국기계설비기술 대표, 조강원(주)모레 대표 등이 참석했다.

투자기업 중 (유)한국기계설비기술은 광주광역시 소재한 스마트 설비제어 및 에너지 효율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전주탄소국가산단에 150억 원을 투자해 제조시설을 신축하고, 40명 규모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기로 약속했다.

시는 에너지 효율 솔루션 전문기업이 전주에 등지를 틀면, 에너지자립 추진을 위해 '스마트그린 국가시범 산업단지'로 지정된 탄소국가산단과의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연구개발특구는 16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탄소국가산단과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 입주를 희망하는 (유)한국기계설비기술(대표 하정성)과 (주)모레(대표 조강원) 등 2개 기업과 총 356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투자기업 중 서울특별시 소재한 (주)모레는 AI 가속기 활용 최적화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 AI 인프라 소프트웨어 기술 자립을 유도하는 인공지능 전문기업으로,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 내 200억 원을 투자해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약 66만㎡(20만 평) 규모로 조성되는 전주 탄소국가산단은 오는 2027년 12월 기반 시설이 완공될 예정이다.

이곳은 전주IC와 북전주선이 가까워 물류비 절감이 가능하고, 인근에 연구·혁신기관이 소재하는 인적적 강점을 지니고 있어 현재까지 26개 기업

과 2768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이 체결된 바 있다.

여기에 시는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 지난 6월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해 제조업을 넘어 인공지능 분야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업종을 추가했으며, 탄소국가산단에 분양가의 10%의 입지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조례 역시 개정해 전주 투자에 대한 매력을 높인 바 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전북의 미래 먹거리인 AI 분야의 컴퓨팅 플랫폼 기업과 도시 안전을 책임지는 기계설비 기업이 전북을 선택해 준 것은 그린과 디지털을 아우르는 미래 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중요한 기회"라며 "협약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기업 한 곳 한 곳이 전주의 희망이며, 본격적인 기업 유치만이 전주를 강한경계도시로 이끄는 길"이라며 "전주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누구나 음식 만들고 함께 나눠요"

전주형 공유주방 '함께주방 3호' 개소

전주시민 누구나 음식을 만들고, 함께 나누는 세 번째 전주형 공유주방이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 문을 열었다.

전주시는 16일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나눔찬방에서 소외계층 나눔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인 '함께주방 3호'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관계자, 전주시 여성자원봉사센터 활동가 등 30여 명이 참석해 함께주방 3호의 의미를 축하했다.

전주형 공유주방 '함께주방'은 기존 공유경제의 일환으로 활용됐던 공유 주방을 복지의 관점에서 바라본 공간으로, 이곳에서는 시민 누구나 음식을 만들고, 함께 나눌 수 있다.

지난 2월 '2025 노숙동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음식 나눔 봉사'를 위한 공유주방 마련이라는 요구사항에서 시작된 '함께주방'은 지난 6월 1호 천사마을과 지난 9월 2호 전주푸드효원점에 이어 세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개소식에서는 동지를 앞두고 전주시 여성자원봉사센터(회장 황민정)의 활동가들이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팔죽 나누기 봉사활동을 펼쳐 의미를 더했다.



4000여명의 팔죽을 완성해 전주지역 사회복지시설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직접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자원봉사자들은 지역민들의 인부를 살피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황민정 전주시여성자원봉사센터 회장은 "어르신들과 우리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들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팔죽을 준비했다"면서 "내내에도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함께주방 3호 개소식과 더불어 뜻깊은 팔죽 나누기 봉사활동까지 함께 하게 돼 의미가 크고, 이러한 마음들이 모여 올 겨울 따뜻한 전주시가 될 것 같다"면서 "앞으로 함께주방은 단순한 봉사를 위한 공간을 넘어,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음식 교육 등 다양한 방편으로 전주시에 따뜻한 온기를 나눠주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공영주차장 운영체계 개선 나선다

무료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 등 추진으로 주차 편의 확대

전주시가 급증하는 주차 수요에 대응하고, 시민 중심의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시는 차량 보급률 증가로 시민들의 주차장 확충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민선8기 출범 이후 쾌적한 주차 환경 제공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등 공영주차장 운영체계 확립에 집중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기준으로 공영주차장은 114개소 5768면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전체 주차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시는 주차회전율을 높여 실제 이용자들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고, 불필요한 주차 수요를 감소시키는 등 보다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운영을 통한 주차면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무료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실시한 주차장 이용 실태 분석 용역을 토대로 무료 공영주차

장 유료화 전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올해 첫 사업지로 서부신시가지 내 3개 주차장의 유료화 운영을 위한 관계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해당 주차장은 △롯데마트 인근(효자동2가 1229-2) 36면 △신한은행 인근(효자동2가 1237-8) 25면 △보훈청 인근(효자동2가 1243-1) 32면 등 3개소 93면으로, 이들 3개 주차장은 이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유료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앞으로 신규 조성하는 공영주차장도 유료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공사를 완료한 △진전서로 매곡교 노상주차장 117면 △조촌동 노외주차장 30면이 유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서신동 선수촌공원 노상주차장 △준공을 앞둔 중경로 노상주차장 △금암동 노외주차장 △예곡 주15 노외주차장 등 4개소 175면 역시 유료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유료화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

해 인근 거주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주차장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월 정기 주차권과 상가 할인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들러 시는 공유 주차 문화 확산을 위해 종교시설과 공동주택, 공공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개방과 유류부지를 활용한 공한지주차장 조성 등 생활권 주변 주차 공간 확보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그동안 도심 곳곳에 다양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왔지만, 시민들에게 공영주차장은 무료 개방 시설이라는 인식이 고착되면서 일부 이용자의 장기 주차로 인한 사유화와 기술 손괴 등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이용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시는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주요 도시에서는 공영주차장도 체류시설 등과 같이 이용자에게 적정비용을 부과하는 '유이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고, 공영주차장 유료화가 보편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적용해 시민들의 주차 효율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권희성 기자

해 인근 거주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주차장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월 정기 주차권과 상가 할인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들러 시는 공유 주차 문화 확산을 위해 종교시설과 공동주택, 공공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개방과 유류부지를 활용한 공한지주차장 조성 등 생활권 주변 주차 공간 확보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그동안 도심 곳곳에 다양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왔지만, 시민들에게 공영주차장은 무료 개방 시설이라는 인식이 고착되면서 일부 이용자의 장기 주차로 인한 사유화와 기술 손괴 등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이용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시는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주요 도시에서는 공영주차장도 체류시설 등과 같이 이용자에게 적정비용을 부과하는 '유이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고, 공영주차장 유료화가 보편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적용해 시민들의 주차 효율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총력전

전주시가 지역에서 추진되는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늘리는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시는 16일 광주광역시 (주)광신종합건설 사를 방문해 전북지역 하도급 협력업체 등록을 요청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광신종합건설은 현재 전주시 고강동에 35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신축공사 시공을 맡고 있다.

시 건설안전국 관계자들은 이날 대시에서는 공영주차장도 체류시설 등 사무처장과 함께 (주)광신종합건설을 찾아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 증대를 위해 현장 추천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시는 협력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우수한 지역건설업체도 입찰에 참

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이날 (주)광신종합건설과 △지역 전문건설업체 60% 이상의 하도급 참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안 사항 발생 시 적극 협력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및 근로자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등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시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향후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수 전주시 건축과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지역건설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건설공사에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해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고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마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지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